

외교, **생활 속으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멀게만 느껴졌던 외교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실용외교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미국과의 공고한 전략 동맹을 축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도 각각 특성에 맞는
실질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주변4국 정상외교 일지



미국

4월 15일-19일
이명박 대통령 방미
(4.19,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

7월 9일
도야코 G-8 정상회의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8월 5일-6일
부시 대통령 방한
(8.6, 한미 정상회담)

11월 22일
페루 APEC 정상회의의 계기
한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



일본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계기
한일 정상회담

4월 20일-21일
이명박 대통령 방일
(4.21, 한일 정상회담)

7월 9일
도야코 G-8 정상회의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10월 24일
베이징 ASEM 정상회의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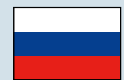


중국

5월 27일-30일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5.27, 한중 정상회담)

8월 8일-9일
베이징 올림픽 참석 방중
(8.9, 한중 정상회담)

8월 25일-26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국빈 방한
(8.25, 한중 정상회담)



러시아

7월 9일
도야코 G-8 정상회의의 계기
한러 정상회담

9월 28일-30일
이명박 대통령 방러
(9.29, 한러 정상회담)



미국 대사관 앞 줄서기 끝! ‘미국 무비자 여행’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

●●●

“지난 여름, 연로하신 옆집 할머니께서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가시려다가 아주 혼쭐이 나셨다네요. 10개가 넘는 비자 신청 서류는 외손자가 대신 작성해드렸다고 해도, 비자 인터뷰 받으신다고 미국 대사관 앞 퇴약실에서 3시간 넘게 줄을 서 계셨는지 뭐예요. 게다가 비자발급 수수료다 뭐다 각종 비용이 20만원도 넘게 들었대요 ...”

이제 복잡한 서류와 인터뷰 없이 미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상을 벌여 오다, 마침내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미국 무비자 여행은 단순히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을 넘어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전망입니다. 아울러 비자 거부율이나 보안 강화 등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9월 방러를 계기로 러시아와도 ‘단기복수 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우리 기업인들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과 상용 목적에 한하여 최대 90일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자 없이 미국에 가려면 ①전자여권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②가급적 출국 72시간 전까지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방문해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실시간으로 입국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입력 가능)

한 번 입국허가 통지를 받으면 2년간 효력이 있으며, 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며, 90일 이상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www.vwpkorea.go.kr 참조



해외 인턴취업, 외국어 공부, 여행을 한번에?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2009년 중 시행

●●●

“요즘 너무나 많이 외국에 나가 어학연수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우리집 형편에 대학 다니는 딸, 아들 해외연수 한번 시켜주기도 벅차니 걱정이 많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외연수와 인턴취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2008년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연간 최대 5,000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현지 언어적응 능력도 키우고 다양한 직종에서 미국의 기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여행을 하며, 여행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HP)’ 참가인원이 두 배로 늘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쿼터를 기존 3,600명에서 2009년 7,200명으로 늘리고, 2012년까지는 10,0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국에 장기간 체류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이란?

- 미국이 방학 기간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Work & Travel’ 프로그램에 어학연수를 연계
-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 등으로 구성





한미 통화 스와프로 300억 달러 확보

...

우리 경제에 ‘300억 달러 단비’를 내려준 통화 스와프 협정,
2008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선물’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2008년 10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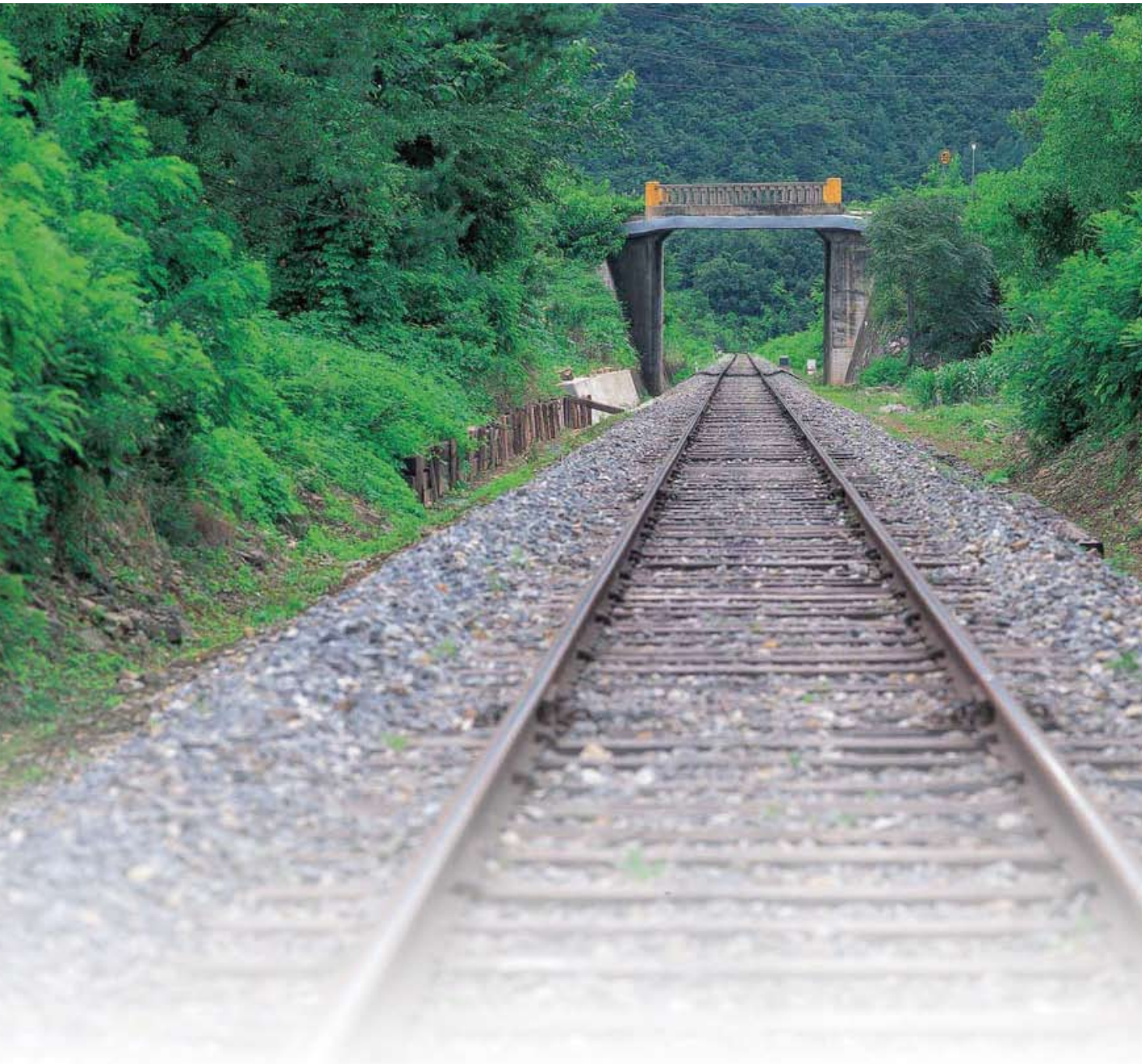
그동안 선진 10개국에만 열려 있던 미국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보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튼튼함을 뜻합니다. 또 선진국 이외에 주요 신흥국과도 통화 스와프를 해야만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측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10월 21일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금융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통화 스와프(Exchange Swap)’란?

국가간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계약으로,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외환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단기 ‘달러유동성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외환·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등과도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철도·에너지·녹색 3대 신(新) 실크로드’ 기회의 땅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린다

...

동서양을 잇는 교통로 실크로드

21세기 실크로드는 단순한 ‘선(線)’에 머물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경제적·문화적 진출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①‘남-북-러’를 잇는 TKR-TSR 철도 연결 ②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추진,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 협력 ③농수산 및 임업 협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양국 간 ‘철(鐵)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이 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내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연간 750만 톤의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또 북한을 거쳐서 올 경우에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신 실크로드’ 비전

철의 실크로드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여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

에너지 실크로드 |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결합하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녹색 실크로드 |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접목하여 태평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녹색벨트 구축





두 배 늘어난 러시아 명태 쿼터

“황태, 생태, 동태... 다양한 이름을 가진 ‘국민생선’ 명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산입니다. 그런데 이 명태가 요즘 값이 올라 식탁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명태자원 보호를 이유로 해마다 조업쿼터를 줄여 왔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명태를 조만간 식탁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 러시아 명태조업 쿼터를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늘려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수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명태 쿼터 확대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작지만 실속있는 외교성과 중 하나입니다.



일본 부품·소재 전용 공단 한국에 설치 추진

“늘어만 가는 대일 무역적자...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리다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

부품소재 분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일 무역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양국 산업 간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기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한국내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08년 말까지 일본 기업 투자사절단 방한, 일본내 로드쇼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부품소재 분야의 역전본시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교역액 2,000억 달러 조기달성, FTA 적극 검토

“우리나라와 중국 간 연간 교역액은 2007년 약 1,450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제1위의 투자국입니다. 양국 간 인적교류는 2007년 580만 명, 매주 800여편의 항공편이 우리나라 6개 도시와 중국 30여개 도시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액을 201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한중 FTA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을 원자력발전,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등 핵심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국 관계 업그레이드

창조적인 ‘원-원’ 관계로 국익도 업그레이드!

●●●

이명박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참가국이기도 한 주변4국과 협력관계를 모두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를 펼쳐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개월간 활발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21세기 국제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동맹’,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 주변 4국과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기로 합의하고 우리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였으며, 중국·러시아·일본 등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같은 주변 4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망 구축은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안보·경제·과학기술·환경 등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Q

한미 전략동맹 구축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A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핵 등 복잡한 안보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4월 정상회담시 한미 동맹을 ‘21세기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의 강화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강화가 반드시 한중, 한러 관계의 발전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명박 정부는 강화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각각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강화된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에 입각한 이분법적 사고, 국가 간 관계를 제로섬 상황으로 파악하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실용주의’의 정신으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주변 국가들과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익을 추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의 주변국, 더 이상 제약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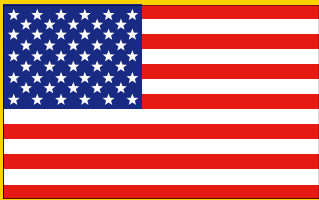
4국으로 둘러싸인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건국 60년 만에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외교'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21세기 세계화·다원화·정보화 시대,
이명박 정부는 지정학적 위치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4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더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향해 '창조적 실용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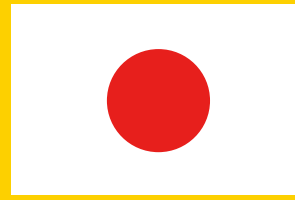
미 국



21세기 전략동맹

- 한미 간 신뢰 및 포괄적 협력기반 구축
 - 미래비전 추진
- 한미 간 안보협력 강화
 - 북핵 문제의 긴밀한 공조
 - 연합 방위력 및 미래 안보협력 강화
-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및 공동번영 기반 확대
 - 한국 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 제고
 - 한미 FTA 조기발효 추진
 - 에너지, 기후변화, 금융 분야 협력기반 마련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등 성숙한 시민사회 협력의 틀 구축

일 본



성숙한 동반자 관계

-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외교 추진
- 핵심 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재계 간 협력 확대
 - 부품·소재 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 효율, 환경 산업 분야 협력 강구
- 미래지향적 관계 기반 강화를 위한 젊은 세대 교류 확대

중 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정치·안보 분야 협력 제고
 - 전략적 관계 발전방안 합의
- 실질 협력관계 공고화
 - 교역목표 2,000억 달러 조기 달성
 - 금융, 에너지, 원전, 이동 통신 등 우리 기업 진출기반 확대로 신성장동력 창출
- 북핵 및 대북 문제 협조 강화
-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고위급 협의 채널 확대
- 에너지·자원 외교 다변화 및 전략적 경험 기반 구축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추진
 -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
 - 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 북핵 및 대북 문제 협조 강화

이명박 정부 주변4국 외교성과

외교, **생활** 속으로

